

조계종 '3·29개혁' 10주년
교계 오피니언 리더 50인의
개혁불사 10년 진단



불교계 지도자들이 조계종 개혁 10년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의외다. 이같은 평가는 변화가 상당 부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개혁 정신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개혁 의지가 부족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종단 구성원의 개혁의지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시대 흐름에 떠밀린 소극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다.

의지 부족... 변화 요구 못 답아

● 개혁 5대 실천 이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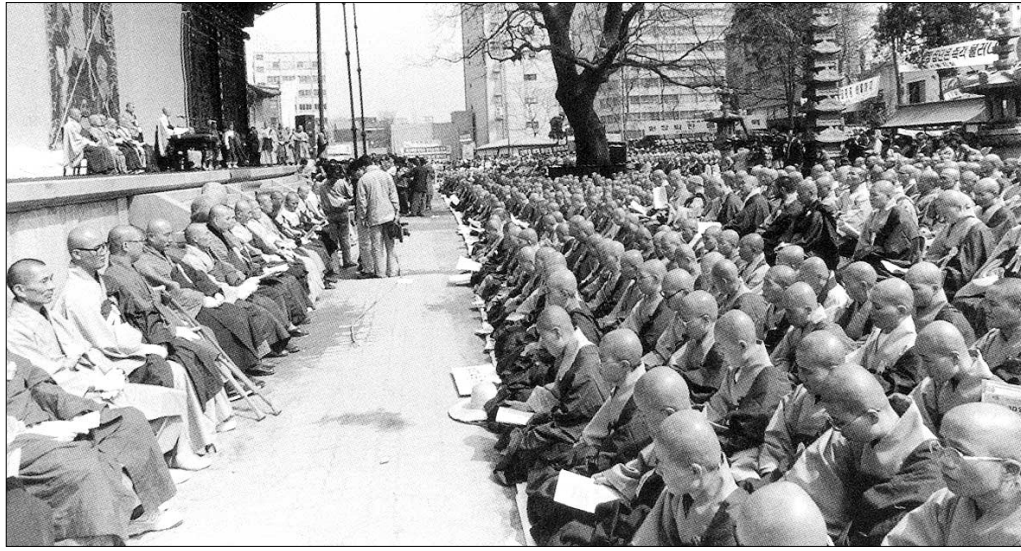
이같은 평가는 조계종 개혁 5대 실천 이념에 대한 설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정정승단 구현'의 경우 '긍정적' (16%)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것은 과거와 비교해 오히려 '승가 정신' 실효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과 돈을 둘러싼 이권투구가 과거보다 더 심해졌고, 청정한 승가 풍토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정법 구현'이나 '종단 운영 민주화'의 경우는 선거 및 인사제도와 사찰 운영 등에 아직도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긍정적인 시각이 근소한 우위를 보였던 '불교 자주화'에 대해서도 대정부 관계에서의 자주성은 높지 않은 반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사회적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각 NGO 단체들이나 복지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이같은 본지의 조사 결과는 중앙승가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2003년도에 실시했던 조사와 비교할 때 긍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중앙승가대 조사 결과 5개 항목별 '긍정적' 응답비율은 △정법 구현 19.3% △불교 자주화 18.8% △종단운영 민주화 21.1% △청정교단 구현 13.8% △대사회적 역할 확대 22.8%였다. 5개 항목 모두 부정적 평가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4월 10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조계종 승려대회. 승려대회 직후 조계종은 '개혁회의'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선거·인사제도·사찰운영 등 사회적 신뢰 낮아 승가-출가정신 회복, 재가-실천적 실행 필요

●출·재가개혁과제
응답자 대부분이 '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이들이 제시한 출·재가의 개혁과제를 종합하면 모두 20여 가지나 됐지만, 그 전체 조건

범종주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선우도량, 전국승가대학원연합(전승련), 중앙승가대학원생회 및 동문회, 동국대석림회 및 동문회, 동국대 동림동문회 등 승가단체와 불교바로세우기 재가불자연합, 우리는 선우, 경제정의구현불교시민연합 등 불교시민단체가 동참했다.

원 청사 점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4월 10일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개혁회의'를 출범, 새로운 종단개혁의 틀을 짰다.

으로 의식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설문에 응했던 한 스님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이 불교 집안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변한다"며 종단구성원의 의식 개혁을 강조했다.

출가 개혁과제로 '의식 개혁' (24%)이 가장 많이 꼽힌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비롯된 결과로 풀이된다. 출가 정신을 회복하여 청정승단 확립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의 반영인 셈이다.

재가 개혁과제로는 '소극적 실행활동' (26%)이 지적됐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패턴에서 벗어나 수행과 실행을 병행하는 '실천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고 응답자들은 설명했다.

한명우·남동우 기자

설문 응답자

계성(전통사 주지) 도영(조계종 포교원장) 동출(서울법구원장) 법정(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신(동국대 정경원장) 법타(은혜사 주지) 본각(중앙승가대 교수) 성경(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세영(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여연(조계종 기획실장) 우학(대구영남불교대학원 원목(마리타 청소년회장) 의연(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지오(계사 주지) 청화(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해주(동국대 교수) 현각(조계종 법구위원회위원장) 현우(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현지(광주사암연합회장) 해능(해인사 해인유물원장) 해원(조계종 전국부구회 기획실장) 해중(북로도 이사장) 호림(살한 불교전국승가회 의장) 강지혜(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공영수(부산불교거사위원회) 김경식(부산대 교수) 김응철(중앙승가대 교수) 김진관(불교신학연구원 총재) 남지심(소설가) 명호(대불연 총동문회 명예회장) 박광서(삼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박창기(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성태중(전국대 교수) 송도(전교부 불자회장) 양성홍(조계종 포교사단장) 윤창희(민족사대 대표) 윤전수(불교아카데미 이사장) 이근우(성당정보통신교 교장) 이만(동국대불교문화대학원) 이만재(불교여성개발원장) 임완숙(전국교사불자연합회) 정영호(MBC 불교연구회) 정창열(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정병조(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정성익(대한불교청년회) 최영준(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홍기성(동국대 총장) 황진교(수원불자연합회 부회장) 송·재가, 가나다순

■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출범 전후

1994년 3월 23일 송산·청화·도법 스님 등 500여명은 중앙승가대대 정진단 대강당에서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이하 범종주)'를 발족시켰다. 이는 3월 30일 열리는 임시중앙종회에서 당시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본원적 과제이며 어길 수 없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또 '불교도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과

범종주 발족-3선 반대-청사 점거-승려대회

범종주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참여하는 종단, 주인의식을 갖는 종단,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종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종단개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의

교화에 전념하는 대다수 승려들이 교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길이 봉쇄돼 있고, 극소수 정치승려들이 종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농성에 돌입했고, 2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총무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팝☆이 이루어지는 한마당 참가자 모집

- 취지**
외국인 노동자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며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청소년들과 지도자들간의 상호우위를 돈독히 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 일시: 1회 - 2004. 3. 28 (일) 10:00 ~ 18:00 2회 - 2004. 4. 25 (일) 10:00 ~ 18:00
 - ★ 장소: 1회 - 강화문화회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39번지 032-933-8016) 2회 - 가산문화센터 (경기도 광명시, 예정)
 - ★ 참가대상: 외국인 노동자 및 자녀, 청소년 선착순 230명
 - ★ 찾아오는 길: 버스 대절 원비 (접수지만 해당) 및 직접 방문 가능
 - ★ 주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후원: 문화관광부
 - ★ 접수 및 문의: 2004년 3월 26일(금) 18:00까지 선착순접수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110-130)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18 삼영빌딩 402호
TEL : (02) 735-8165, 733-5138, 737-9260 / FAX : (02) 722-6623
홈페이지 : www.yeba.or.kr / E-mail : yeba@chollian.net ※ 자원봉사확인증 발급 (8시간)
- 행사 내용**

주 제	순 서	내 용
체험마당1 (만들기)	추억을 담아 (놀이감 제작)	제기, 팽이, 종이가방, 딱지접기
	희망을 담아 (벗질 공예)	달걀바구니, 금줄, 짚뱀, 인형, 안경 만들기
체험마당2	신비를 담아 (염 색)	순수건 염색, 봉숭아 물 들이기 등
	꿈을 담아 (소원 성취)	연등, 염주, 무지개오래, 비누방울 등
	놀 이	추억의 재미난 놀이 체험
	먹거리 장터	팥기, 달고나, 떡볶이/꼬치, 김밥, 솜사탕 등
청소년 공연	풍물놀이, 가야금연주, 선무도	
다도 강좌	스님 또는 전문 강사분의 강좌	
사진 촬영	플라로이드	

삽단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한국의 비구니 스님 <9> 성연 스님

'이렇고' 화두 들며 대중외호

"인생살이 품같이 생각하고 부처님 믿고 살라는 거지...무슨 애길 하라고...?"

대구 팔공산 남쪽기슭, 동화사에서 서북쪽으로 8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내암자 양진암. 73년간 대중외호와 함께 수행 외길을 걸어온 한 비구니 스님을 만날 수 있다. 세수 85세 법랍 73세의 성연 스님이다. 자그마한 체구에 인자한 모습,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불교정화까지 파란만장한 시대를 뚫고 견고한 수행외길의 길이 숨겨져 있다. 한사코 할 말이 없다는 스님은 색(色)으로 보여줘야 알아듣는 범부를 위해 하나하나 수행의 뒷이야기를 풀어냈다.

먹거리 귀하던 시절 20년 동안 탁발로 선방수좌 뒷받침

스님은 12세에 해인사 약수암에서 폐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7세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짧은 시절 제방선방 곳곳을 거침없이 다니며 수행했던 스님은 정화 후 3년만인 58년에 동화사 양진암에 들어와 비구니 선방을 열었다. 이때 스님을 따라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스님이 성타 스님, 현묵 스님, 패승 스님, 육문 스님 등 7명이다.

살기가 힘든 시절, 스님은 이때부터 20년을 탁발로 선방 수좌들의 공부를 뒷받침했다. 스님의 탁발은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길에 하는 열불소리는 온 산을 울리며, 호랑이도 산짐승도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게 했다.

오늘날 양진암은 관음전과 법보전, 미소실 등을 갖추고 36명의 수좌가 공부하는 유서깊은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대부부의 비구니 스님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할 정도니 여기에는 성연 스님 45년 대중외호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배지선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대구 동구 직지불교대학 직지선원

개원법회 및 봉불식

직지사 주지스님인 자광스님을 모시고 직지사 대구 동구 직지불교대학 직지선원을 열게 되셨사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소서.

..... 식 순

- ◎ 법 어: 직지사 주지 자광 큰스님
- ◎ 축 사: 직지사 전주지 정혜창 큰스님
- ◎ 격려사: 직지사 전주지 유법성 큰스님
- ◎ 격려사: 직지사 전주지 김법등 큰스님

- 부처님 점안시간 : 오전 9시
- 개원법회 및 봉불식 : 2004년 4월 2일(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주 관 : 수성구 직지불교대학 황룡사 / 달서구 직지불교대학 와룡정사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직지사 대구 동구지원 (지하철 반야월역 앞)
- 전 화 : 053)961-8620 ■ 팩 스 : 053)961-8621 (대구 동구 직지선원)
- 전 화 : 053)784-8620 (수성구 지산동 황룡사)

◎ 2부 기념공연 : 직지불교대학 황룡사 합창단과 동기타로 노래하는 도일스님 (청산은 깊어 좋아라)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52-2 (5층) (지하철 반야월역 3번 출구)

●버스노선 : 일반 980번, 좌석 719번 ●범안로 출발시 1.2번 요금소를 지나 지하철 율하역에서 우회전하여 직진하세요

< 약 도 >